

“우리 손으로 복지문화마을 만들어요”

서귀포 서부지역 마을별 특화 복지사업 결실
“장애인·비장애인 공동체 형성... 삶의 질 향상”

서귀포시장장애인복지관 서부분관이 서귀포 서부지역(중문·예래·안덕·대정)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과 여러 단체가 힘을 모아 복지와 문화가 결합된 명품 복지문화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거점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형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구축·지원하고, 장애인복지 욕구 대비 현안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분관은 장애인만의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주민이라는 하나의 주체로, 마을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사회통합과 문화·사회 참여 등의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은 중문·예래·안덕·대정 지역에 한 곳씩 마을 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마을사랑방으로 지정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마을 주민을 위한 문화공연과 마을학교, 복지이야기 나눔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복지마

을의 실현을 위해 2016년 서귀포 서부지역 주민 220여명을 대상으로 마을의 자원·사람 등 자원을 조사하고, 중문·예래·안덕·대정 지역의 400여명을 대상으로 마을별 원탁토론을 거치며 주민의 복지 욕구 및 의사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2017년에는 마을주민이 바라는 복지관련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마을별로 T/F팀을 구성, 주민 공청회를 거쳐 마을별 복지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올해에는 중문·예래·안덕·대정 지역의 마을 주민 개인과 읍면동 맞춤형복지지원팀·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청년회·부녀회·장애인지원협의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각 마을별 특화복지 사업을 운영 중이다.

‘중문동은 고독사 제로마을 만들기’로 주민으로 구성된 활동가와 독거대상(장애인·노인)을 선정했다. 독거대상자와 지역주민을 매칭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고 정서 지원 등을 통해 독거대상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3세대가 함께하는 문화공유 마을 만들기 행사.

예래동은 ‘3세대가 함께하는 문화공유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바깥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노인과 지역주민(3세대)을 매칭해, 사회 참여 및 정서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제주시 오일장 첫 나들이를 기점으로 매월 다양한 여가활동을 계획 중에 있다.

안덕면은 ‘안전한 동지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주민 가정

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대정읍은 텅 빈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로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이 불편 없이 생활환경을 확장할 수 있도록 대정읍 시계탐을 중심으로 병의원·약국·안경점·식당 등에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분관 관계자는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복원함으로써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가 마을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제1회 문화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열려

표선면 주민자치위원회

서귀포시 표선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3일 표선면사무소 2층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문화예술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문화예술체육 포럼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경연대회는 지역 내 문화예술동아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연을 기획해 마련됐다.

>>사진

경연에는 표선누리합창단, 곱들락 라인댄스, 튜닝, 토산리 우쿨렐레, 두드림 등 5개의 동아리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으며, 합창·댄

스·난타·기타 등 각기 다른 예술분야에서 참신하고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공연 후에는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포곡새 천지, 사랑의 노래를 합창한 표선누리합창단이 최우수상을 차지했고 토산리 우쿨렐레, 튜닝 팀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안지호 주민자치 위원장은 “올해 처음 열린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지역 내 동아리팀들의 예술적 재능과 역량을 엿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 공연을 즐기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공유할 기회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흥준기자

청수리 반딧불이 마을기업 ‘성공 예감’

지난달 16일부터 한달 운영
주민들 해설사로 나서 안내
제주시 “생태관광 적극 육성”

올해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한경면 청수리 반딧불이마을영농조합법인 이 올해 마련한 ‘곶자왓 반딧불이 활용 생태관광사업’이 마무리됐다.

제주시는 이를 계기로 곶자왓 반딧불이를 활용한 생태관광사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반딧불이마을영농조합법인은 대부분의 공동목장들이 골프장 부지로 매각됨에 따라 곶자왓 활용방안을 모색한 결과, 곶자왓 생태관광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진

특히 지난달 16일에 시작된 제2회 곶자왓 반딧불이 축제에 한달동안 야간 곶자왓 탐방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운영은 오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뤄졌으며 입장권은 오후 2시부터 웃뜨르권역빛센터 현장에서 예매하도록 했다. 입장료는 어른 1만원, 어린이 500



0원을 받았다.

영농조합법인은 야간에 정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반딧불이를 관찰하며 제주 자연의 신비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역주민 30여명이 직접 해설사 교육을 수료하고, 곶자왓 생태계와 마을의 역사에 대한 해설과 안내를 담

당하기도 했다.

청수리영농조합법인 측은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육성 등 주민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한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64)772-1303.

이현숙기자 hsl@ihalla.com



복지시설에 사랑의 온정

서귀포평생학습관 모다드렁

서귀포시평생학습관 모다드렁 동아리(회장 강명희)는 최근 복지시설인 살레시오의 집과 위미 예년 요양원을 방문해 염색물을 들인 저고리·바지 22벌과 손수건 50점을 전달했다.

>>사진

이날 전달한 천연염색 옷 등은 모다드렁 동아리 회원들이 올해 3월 원단을 고르는 것을 시작으로 제작부터 염색 및 다림질까지 하며 직접 만든 것이다.

1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서귀포시평생학습관 모다드렁 동아리는 지난 2013년에 결성해 생활한복과 리폼에 대한 학습을 지속해오면서 매년 옷 기부를 전개해 오고 있다.

조흥준기자



“지역주민·다문화가정 함께 어울려요”

15일 한마당축제 개최

남원읍 주민자치위원회

서귀포시 남원읍주민자치위원회는 15일 남원생활체육관에서 토닥토닥 남원읍 행복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지역주민·다문화가정·외국인근로자가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

>>사진

토닥토닥 남원읍 행복만들기 사업이란 복지문제를 지역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지역실정에 맞으면서 다양한 복지계층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한마당 축제에서는 지역 내 주민,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미니운동회, 즉석노

래자랑 등 상호교류 행사를 가졌다.

남원읍 신명나는 난타 동아리의 신선 공연을 시작으로 팀별로 대형공 굴리기, 대형공 하늘 높이, 호핑볼, 림보, 대형바톤 달리기 등의 미니운동회가 진행됐다. 또 숨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노래자랑, 끼자랑에 이어 행운권 추첨과 시상식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오영의 남원읍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 간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마음의 거리감을 좁히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남원읍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남원읍주민자치위원회가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근로자들과의 상호교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흥준기자



(주)한라산

회장 현 승 탁

수축훈 국민훈장 모란장

“2018년 법사랑 한마음대회”에서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봉사에 경의를 표 합니다

공적
요지

- 법무부 제주지역 법사랑 위원 37년 활동기간 선도유예 소년과 보호관찰자의 선도보호와 취업 알선 등 범죄예방과 법질서 지키기 운동에 헌신적 기여
- 향토기업인의 사명감으로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제주대학과 한림공고 등 각급 학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발전기금 출연 및 적십자회비 기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헌신



국제라이온스협회 354복합지구

16-17 총재단 A지구 심기홍 총재, B지구 김상철 총재, C지구 이계오 총재
E지구 김진옥 총재, F지구 이원일 총재, H지구 이효숙 총재